

The Problem of History(역사의 문제)

누구의 손길도 닿지 않은 채 방치되어 있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는 이 소박한 하얀 정원 의자는 사이먼 후지와라의 작품으로 전쟁에서 살아남은 기념비로서 자리하고 있습니다. 의자는 플라스틱처럼 보이지만, 실제로는 청동으로 제작되었습니다. 제 2차 세계대전 중에는 금속 수요가 많았고, 신사에 있던 대부분의 청동조각상을 녹여 무기로 만들었습니다. 이 의자는 과거 전쟁으로 인해 녹아버린 조각상의 운명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? 어쩌면 나뭇가지들이 끼어들어 손이 닿지 않는 곳까지 들어 올려버릴지도 모릅니다. 아니면 아마도 '일상용품'으로서 평범하게 숨어 있으면, 미래의 파괴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. 실로 '일상용품'은 1,000년 후에는 무엇을 의미하게 될까요?